



보도시점

배포즉시

배포 2025. 10. 22.(화) 16:00

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, 전남 소재 K-FOOD 중소기업 해외진출 돋는다

- 재외동포청-전라남도, 22일 수출상담회 개최…21일 한인비즈니스 포럼도 열어
- 재외동포 경제인 30여 명, 70개 중소기업과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

□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전라남도(도지사 김영록)와 손잡고 전남지역 소재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나선다.

- 재외동포청은 21일에서 23일까지 목포에서 ‘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 및 수출상담회’를 전라남도와 공동 개최해, 전남 지역 중소기업 70개 업체의 수출을 지원한다.
- 특히 지난해 8월 위촉한 OK-BIZ 자문위원 180명 중 30여명이 참석해,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수출상담회에 참여하는 지역 우수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.
- 이번 수출상담회는 최근 K-FOOD의 전 세계적 인기를 감안해, K-FOOD와 관련있는 OK-BIZ와 중소기업을 주로 선정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.
- 또한 OK-BIZ는 23일에는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리는 ‘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장’도 방문해 부스 참여기업 42개사와 기업상담과 박람회장 투어도 진행한다.

□ 한편 21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한상(韓商) 경제권 구축을 위해 비즈니스를 활성화를 놓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포럼을 열었다.

- 포럼에는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, 강위원 전라남도 경제부지사, OK-BIZ, 중소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, 개회식, 주제발표,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했다.
- 변 차장은 개회사에서 “국내기업과 동포기업의 역량을 결집해,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응하고, 동시에 전남 소재 우수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

□ 재외동포청은 올해 11월에는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‘2025년 세계 한인비즈니스 포럼 및 수출상담회’를 개최할 예정이다. 끝.

담당	재외동포청 교류협력국 동포경제지원과	책임자	과장	이경아 (032)585-3220
		담당자	사무관	박용준 (032)585-3297

대한민국
자체브리핑

